

이재명, ‘아웃사이드’에서 역대 최대 黨 장악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李,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

당원과의 일체감에 압도적 지지율
지난 대선경선·지방선거서 ‘잡음’
당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반응 나와
尹 비상계엄 이후 ‘일체감’ 강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당원과의 일체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진

행된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넘어 ‘아웃사이드’로 통했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및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후보는 당시 정동영계·정세균계 등으로 분류됐지만 한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다. 기초 단체장의 대선 경선 출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했

지만, 이 후보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고 하거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를 연호했고,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후보는 훗날 당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아, 좀 살살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후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이를

발미삼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찍겠다는 지지자들도 일부 나올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당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라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격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0.73%포인트차이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내에 입성했고, 대표직을 연임하는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점점 당

원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주시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원들과 이 후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압도적 정권교체·내란 종식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 후보가 고난을 겪었고, 함께 고락을 겪은 세월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길어졌다”며 “당원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냈다는 ‘동지’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금주 출마여부 결정… 경쟁력은 ‘글썄’ 국민의힘 2차경선… 대권주자들 행보 강화

내일 29일 거부권 행사 후 사퇴 예상
원샷경선보다 단일화 가능성 높아
후보 간 신경전 등 효과 반감될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는 희소식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출마선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 권한대행이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한 후에 30일에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관건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 후 행보다. 구(舊) 여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 ‘원샷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민심(일반 여론조사) 50%, 당심(당원투표) 50%’이라는 물이 있으니, 경선 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 ‘반명(반이재명) 그랜드 텐트’를 꾸리기 위한 범보수 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구 민주계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후 ‘원샷 경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큰 정당의 경선을 치른 최종 후보에게 당내 경선을 한번 더 치르라는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는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경선에 참여한 게 아니라, 2번의 컷오프를 거친 최종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은 ‘부전승’을 한 셈이다. 또 당원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범보수 단일화 경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단일화 경선 규칙을 두고 각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져,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2~24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23%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6%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4인의 후보에 한 권한대행까지 합친 지지율은 29%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8%로, 5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려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는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를 2인으로 압축하는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내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있기에, 각 후보들은 ‘캐스팅 보터’가 된 한 권한대행 지지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당원투표·국민 여론조사 진행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7~28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지 득표율 1~2위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종 후보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협상 또는 범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구성해야 하는 경선 주자들은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 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종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反이재명’ 빅텐트·공직선거법 판결 ‘변수’

>> 1면 ‘이재명, 다시 대권 도전…’서 계속

민주당도 천명(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뽄뽄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홍 기자